

# 노인가계 포트폴리오 구성 및 영향변수에 대한 연구\*

## A Study of Asset Portfolio and Impact Variables affecting on the Aged

배미경\*\* · 홍공숙

부교수 계명대학교 경제통상대학 소비자정보전공 · 교수 오하이오 주립대학, 소비자경제학전공

MiKyeong Bae · Gong Sook Hong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Departmen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at KeiMyung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Human Ecology, Department of Consumer and Textile Science at Ohio State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sset allocation of the aged and analyzed the impact variables on the portfolio ratio of different kind of financial assets. The aged was divided three groups, 55-65, 65-75 and 75 ove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ged are not likely to invest on risky asset and their assets composed of mostly real estates and bank account. The study include four different assets, such as liquid asset, risky assets, home equity and other real estates, which reflects the liquidity problems of households asset allocation for the aged in Korea. The aged who do not participate on stock market are likely to have more liquid assets. Households lived in Daegu, Kwangju, ChungCheong and CheonRa tend to have more liquid assets compared to those in Seoul. Total income is appeared having positive relationship with illiquid assets including stock, bonds, and private pension. Age group with 75yrs over tend to have greater mean of illiquid assets and it may caused by the polarization of assets, which gives intuition for the future study.

Key Words : Portfolio, Financial Assets, the Aged, Portfolio Ratio

### I. 문제 제기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여 1970년의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5.4%, 3.3%, 1.9%였으나, 1995년의 경우 각각 8.7%, 5.5%, 3.3%로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추세는 2000년 이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박충선 등, 1998).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기대수명이 상승되는 반면 평균 은퇴연령은 낮아지며 조기은퇴율이 증가하는 등 은퇴가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러한 인구동향의 결과로서 가계가 은퇴 후 보내는 시기가 길어질 것으로 보여져 앞으로의 은퇴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의 중요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가계는 가정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라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주택구입, 자녀교육, 노후준비 등에 관련된 수많은 재정

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재정목표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Weagley & Gannon, 1991).

가계투자자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가계가 어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가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투자유형의 위험성 또는 안전성의 정도가 각기 다르고, 결과적으로 동일 자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투자결과는 가계가 선택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선택은 가계의 재정상태분석과 재무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가계가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때 각 가계는 현재의 경제적 상태와 가족특성에 따라 가계구성원들의 현재 및 미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동일한 기대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대상이라도 각 가계가 그 투자대상에 부여하는 가치 및 기대효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계의 선호도 또한 포트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13-B00018)

\*\* Corresponding author: Mi Kyeong Bae  
Tel: (053) 580-5864, Fax: (053) 580-5483  
E-mail: baemik@kmu.ac.kr

폴리오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가치 및 선호, 태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가계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노인가계가 자산을 투자할 때 경제적 상태 뿐 아니라 투자에 대한 선호 및 태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투자대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가계의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란 여러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투자형태로 자산의 결합을 의미하는데(이필상, 1994), 가계는 여러 개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재정적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데 보다 유리해진다.

그러나 가계는 저축이나 투자에 의해 미래에 획득할 자산이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험하며, 현실적으로 가계가 저축하고 투자하는 대안들 중 많은 부분이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기대수익과 위험 간에는 상반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가계는 단지 투자의 수익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대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같이 고려하며, 가계의 현재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투자대안을 결정하게 된다.

노인가계는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를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고 은퇴자금이나 은퇴 후 소득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에는 저축을 하지 못할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은퇴 전 저축을 통하여 은퇴자금을 준비하게 된다(DeVaney, 1995). 또 은퇴 후에도 은퇴 전의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기 위해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의 확보나 개인연금의 가입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준비하게 된다(Yuh & DeVaney, 1996)을 김순미, 1997 에서 재인용).

가계는 가족생활주기단계에 따라 다른 재정적인 욕구와 목표를 지니게 되며, 이는 다양한 자산에 가계의 부를 배분하여 포트폴리오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Xiao, 1995), Siverd(1986)는 은퇴기에는 은퇴에 따른 소득 상실에 대비해서 소득원이 될 만한 안전자산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였다. Weagley & Gannon(1991), Ramaswami(1992)의 연구에서는 연령 또는 생활주기단계가 이행됨에 따라 위험자산을 더 보유하고자 하나, 은퇴기가 되면 위험자산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훈(1998)은 금융자산 보유행태를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자산 및

순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노인기의 미래소득의 흐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비적 동기에 따른 저축수요가 증대된 결과로 보았다.

한편 이은실·최현자(1998)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 포트폴리오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노년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요소의 보유수가 가장 적었으며, 거의 모든 포트폴리오 구성요소의 보유액에 있어서 다른 단계와 차이를 보이면서 감소를 하였다. 또한 다른 형태의 자산에 비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은퇴가 다가오면서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을 다 사용하거나 부동산의 형태로 전환한 것으로 보는 한편, 근로소득의 단절 또는 감소로 인해 자산의 유동화가 필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어 자산의 유동성 결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은퇴기에는 소득의 상실, 자산구조의 변화, 투자태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은퇴기 이전과는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노인가계의 재정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로서 Schulz(1992)는 노인가계의 경우 비노인가계에 비해 근로소득이 중단되는 대신 연금이나 자산소득 또는 이전소득을 보유함으로써 경제적 지위를 유지시킨다고 하였으며, Radner(1987)는 노인가계의 소득중앙치가 비노인가계의 65% 정도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수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가계는 비노인가계보다 저축액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총자산, 순자산, 실물자산의 보유액이 더 높았고, 총부채와 금융자산의 보유액은 상대적으로 더 적게 나타남으로써 노후준비를 위해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금융자산의 보유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2. 노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노후생활에 관한 연구 가운데 노후생활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인 연령, 직업, 소유자산의 정도, 연금수혜 유무 등에 관하여 조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에 거주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은퇴계획에 대해 조사한 김순미와 양정선(199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은퇴계획집단의 연령이 비계획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의 경우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은퇴 계획집단이 비계획집단의 소득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은 모두 은퇴 계획집단이 비계획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

은 연령에 따른 자산축적의 결과로 보여진다.

도시중년주부를 대상으로 노후준비행동에 관해 조사한 김성숙과 박운아(1992)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많을수록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의 경제적 목표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에 보다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직 종사자보다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그리고 젊은 가계가 노후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가계는 25%에 해당하였고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는 평균이 39세였으며 노후준비방법은 주로 금융저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마련방법에 대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78.2%의 노인들이 자녀의 부양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는 재산소득, 저축, 연금, 생활보조금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가장 심한 근심거리로는 경제적인 불만으로 그 이유는 무저축, 조기정년, 노후소득보장제도 및 연금의 미비 등을 들고 있다(이행숙, 1994). 은퇴전의 직업은 은퇴 후의 사회적 참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전문직을 가졌던 노인들은 그들의 개인적, 사회적 자산으로 대체역할이 가능하므로 자연히 만족도가 높은 반면 육체노동을 하였던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1997년 한국가구패널조사에 사용된 자료를 분석한 홍성희 등(199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45-54세 집단이 독립적 부양형태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독립적인 부양형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독립적 부양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인이 직업을 갖고 있는 가계도 의존적인 부양형태보다는 독립적인 부양형태를 더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적인 부양을 원하는 가계가 의존적인 부양을 원하는 가계에 비해 총소득액과 금융자산액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높은 경제적 자립도로 인해 독립적인 부양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0-59세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김미(1992)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34%가 연금불입을 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연금을 불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문제가 작은 반면 역할 상실 문제가 클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 가운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이 노후의 준비와 관련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농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집단이 자식에 투자하는 것이 노후의 준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부를 대상으로 노후를 위한 재정 계획과 수행에 대하여 조사한 김근연과 이기영(1991)의 연구에 따르면 남편의 연령이 많을수록, 남편의 은퇴계획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연금수혜

를 기대하는 가계가 노후를 위한 재정계획을 더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계의 순자산이 많을수록 노후를 대비한 재정계획을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연금 수혜를 기대하는 가계가 노후를 위한 실제 재정적 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 성별, 연령, 교육수준, 최장기 근무직업의 근무연수와 소득수준이 미국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성영애(1994)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경제적 복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서 교육수준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종과 성별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의 안정성을 측정해주는 최장기 근무직업의 근무연수는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연령, 직업, 소유자산의 정도, 은퇴시기, 은퇴이유, 연금수혜 유무 등에 따라 노후 준비 또는 은퇴이후 생활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노인 가계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떠한가?

노인가계의 연령별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떠한가?

노인 가계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0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도시가구패널 조사이며 25개 지역별로 작성된 1차추출단위 조사구명부에서 상대표준오차를 이용하여 각 지역별 표본 규모(조사구수)를 결정하였고, 지역별 표본조사구 추출시 크기의 척도에 비례하는 확률을 가진 계통추출방법을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25개 지역별 표본추출률은 서로 다르게 되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는 동일하게 되는 지역별 자체가중평균이며, 표본가구는 28,647가구이다. 이 중 부적격가구를 제외하고 실제 조사된 적격가구수는 27,001가구이며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연령 55세 이상 노

인가계에 해당하는 4,824가구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노인가계의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 55세를 선정한 것은 고령자 고용촉진법(1991)과 통계청 조사에서 노인과 비노인의 기준연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55세는 사회적 노동의 단절을 의미하는 정년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령이기도 하다.

2) 4가지 기준자산항목

미국 가계를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은(Emily Kao, 1996, p.45) 유동성금융자산(liquid financial assets)은 현금, 수표계좌, 정기적금 예금을 포함하며 위험자산(risky financial assets)은 CD, 주식, 채권, 펀드, 연금, 생명보험으로 구성된다. 자가평가액(housing equity)은 자가 목적의 주택을 의미하며 자가 이외의 실물자산은 토지, 자가 이외의 주택, 건물, 분양금(계약금)을 가리킨다. 한국가계를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은(박주영외, 1999), <표 1>에서와 같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그리고 실물자산으로 자산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4가지 기준자산항목은 Emily Kao(1996)와 박주영·최현자(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산분류항목을 참고하여 안전금융자산, 위험금융자산, 자가평가액, 자가 이외의 실물자산으로 나누었다. 안전금융자산 항목에는 은행상품이 해당되며 위험금융자산에는 주식, 채권, 투신사및 중금사의 각종예금, 계, 사채가 속한다. 자가평가액은 자가 목적의 주택을 의미하며 자가 이외의 실물자산에는 토지, 자가 이외의 주택, 건물, 분양금(계약금)이 해당된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결과는 세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조사대

<표 1> 가계 포트폴리오 구성

구분	구성 요소	
자산 포트폴리오	안전 금융 자산	은행요구불예금, 은행저축성예금, 신용협동조합의 각종예금, 우체국의 각종예금, 상호신용금고의 각종예금, 농수축협동조합의 각종예금, 기타예금, 보험.
	위험 금융 자산	투자신탁/증권회사의 각종예금, 종합금융/단자회사의 각종예금, 주식, 회사채, 계불입금, 사채준 돈.
	실물 자산	토지, 주택(현거주지, 비거주지), 상업용 건물.

(박주영·최현자, 1999, p. 198)

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노인가계의 연령별 자산상태 및 포트폴리오 구성비를 기술적 통계를 이용하여 기술하였다. 둘째, 4가지 자산항목별로 연령별 노인가계의 자산상태를 조사하였다. 셋째 노인가계의 4가지 자산항목별 보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을 살펴보았다.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가계의 가족원수는 평균 2.6명으로 대부분 가구주와 배우자의 핵가족 형태인 것으로 보이며, 학령기 아동수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만원)

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가족원수	2.70	1.32	
학령기 아동수	0.20	0.50	
수입원수	1.19	1.10	
총소득	2257.70	2180.90	
근로소득	1029.09	1439.35	
사업소득	498.32	1286.05	
농림·축·어업	8.23	66.46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소득, 임대소득)	268.79	661.05	
이전소득 (연금, 기타사회보장수혜, 사적보조금)	304.90	516.26	
기타소득	148.37	845.15	
순자산	13912.62	21803.19	
독립변수	빈도	비율(%)	
가구주 교육수준	무학	1218	20.16
	초등학교	1835	30.37
	중학교	987	16.34
	고등학교	1219	20.18
	대학(4년제 미만)	84	1.39
	대학(4년제 이상)	622	10.29
	대학원	77	1.27
결혼상태	기혼	3685	76.39
	사별	1019	21.12
	이혼	120	2.49
주식투자 유무	투자하는 가계	4480	92.87
	투자하지 않는 가계	344	7.13
가구주 연령	55-64세	3147	65.24
	65-74세	1394	28.90
	75세 이상	283	5.87
자가주택 유무	소유	3680	76.29
	비소유	1144	23.71
지역	서울	732	15.17
	6대도시	1924	39.88
	군부지역	2168	44.93
취업유무	취업	1822	37.77
	비취업	3002	62.23

\*연간 소득 및 자산임

는 평균 0.2명으로 나타났다. 수입원수는 평균 1.1명으로 총소득의 평균은 2,257만원이며, 순자산의 평균은 13,912만원이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30.37%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20.18%), 무학(20.16%), 중학교 졸업(16.34%), 4년제 대학 졸업(10.29%), 4년제 미만 대학 졸업(1.39%), 대학원 졸업(1.27%)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전체 표본의 76.39%를 차지하는 반면 사별이 21.12%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고, 이혼의 경우 120명(2.49%)으로 기혼이나 사별에 비해 그 비중이 낮았다.

주식투자 유무를 살펴보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노인가계가 전체 노인가계의 92.87%로 노인가계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7.13%로 나타났다. 노인가계의 가구주 연령은 55세 이상 64세가 65.24%로 전체 노인가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74세가 28.9%, 75세 이상 노인가계가 5.87%로 조사되었다.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가계는 76.29%로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노인가계는 23.71%로 나타났다. 노인가계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가계가 15.17%로 나타났으며 6대도시의 노인가계는 39.88%, 마지막으로 군부지역의 노인가계는 44.98%로 서울지역과 6대도시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가구주의 은퇴로 인해 거주지역을 서울이나 6대도시에서 군부지역으로 이동한 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노인가계 중 아직 취업인구에 포함되는 가계는 37.77%로 나타났으며 취업을 하지 못한 노인가계는 62.23%로 조사되었다.

<표 3>에서는 노인가계의 연령별 재정상태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55-64세인 노인가계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1,319만원으로 65-74세 노인가계의 연평균 근로소득인 532만원보다

약 2.5배 정도 많은 금액이며, 75세 이상 노인가계의 241만원과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근로소득의 변화는 연령증가에 따른 가구주의 취업률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지출에 있어서는 55-64세 노인가계는 연평균 1,656만원, 65-74세 노인가계는 1,165만원, 75세 이상 노인가계는 953만원으로 모두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지출을 하고 있으며 소비지출 역시 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인가계의 근로소득을 초과한 소비지출은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을 통해 충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양세정·성영애(2001)에서 밝힌 노인가계의 소득원천 중 사회보장제도나 자식들에게서 비롯되는 이전소득의 비중이 20.3%로 높은 수준이며 재산소득 또한 비노인가계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금융자산 중 은행보유액은 55-64세 노인가계가 가장 많은 2,321만원이며 75세 이상 노인가계가 2,114만원, 65-74세 노인가계가 1,756만원 순이다. 주식보유액은 55-64세 노인가계가 평균 144만원, 65-74세 노인가계가 46만원이며, 75세 이상 노인가계의 경우는 2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금융자산의 비중이 점차 감소함을 보여준다. 또, 일반적으로 노인가계는 미래에 대한 소득력이 현저하게 감소하므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수익성은 높지만 투자위험도 높은 위험금융자산의 비중을 적게 하는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김연정(199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채권보유액은 65-74세 노인가계의 경우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55-64세 노인가계는 15만원만 보유하고 있는 반면 75세 이상 노인가계는 537만원으로 조사되어 주식보유액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인연금의 경우는 각각 135만원, 94만원, 6만원으로

<표 3> 노인가계의 가구주 연령별 재정상태

변수	55-64세 (N=3147)		65-74세 (N=1394)		75세 이상 (N=283)		F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근로소득	1319.95	1537.57	532.37	1077.46	241.43	733.15	65.7**
소비지출	1656.37	1109.10	1165.91	895.27	953.47	775.85	3.45*
은행	2321.04	5261.70	1756.23	3802.09	2114.86	5128.15	14.7**
주식	144.14	889.51	46.16	460.81	20.81	166.32	7.67*
채권	15.19	402.43	0	0	5.37	891.6	78.9**
개인연금	135.49	1052.59	94.58	1144.05	6.16	46.78	16.78*
계 및 사채	301.01	1908.60	159.17	761.05	138.94	1039.47	2.45
자가주택	7761.64	9370.86	7381.00	9689.50	6995.27	9772.76	1.34
토지	2237.65	9017.75	1706.28	6643.56	3756.57	14910.35	4.67*
자가 이외 주택	1154.33	4644.43	830.78	3724.23	741.59	4033.44	12.3*
건물보유액	1087.23	8235.27	926.43	7627.23	844.52	8580.69	3.56*
분양금	36.59	661.22	32.28	974.75	106.01	1783.31	17.8**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있고 계 및 사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물자산 중 자가주택의 경우 55-64세 노인가계는 7,761만원, 65-74세 노인가계는 7,381만원, 75세 이상 노인가계는 6,995만원으로 세 그룹 모두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금액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가계가 총자산액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문숙재, 김순미, 김연정(199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연정(1998)은 노인가계가 주택을 유동화시키지 못해 대부분의 자산을 실물자산으로 보유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토지보유액은 55-64세 노인가계의 경우 2,237만원에서 65-74세 노인가계는 1,706만원으로 줄어들었다가 75세 이상 노인가계는 3,756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자가 이외 주택과 건물보유액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분양금보유액은 55-64세 노인가계와 65-74세 노인가계는 별 차이가 없으며 75세 이상 노인가계가 106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는 노인가계의 연령별 포트폴리오 구성비를 살펴봐왔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전연령 가계의 포트폴리오 구성비를 보면 은행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1%로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점 더 심해지며 75세 이상 노인가계의 경우 은행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노인가계의 위험회피적인 투자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식의 비중은 전연령 가계의 평균이 0.04% 나타났으며 노인가계의 경우 평균보다는 세 집단 모두 높고, 55-64세 노인가계와 65-74세 노인가계는 4%로 동일하며, 75세 이상 노인가계는 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4> 노인가계 연령별 포트폴리오 구성비

연령	은행	주식	채권	개인 연금	계 및 사채	토지	자가 이외 주택	건물	분양금
전연령 가계의 평균	41.33	0.04	3.42	3.16	39.23	5.79	5.38	1.31	0.34
55-64	43.98	4.83	0.08	26.68	6.07	7.07	8.99	1.68	0.59
65-74	55.85	4.03	0.05	26.32	5.55	2.96	4.41	0.29	0.54
75<	83.66	1.31	0	10.18	3.08	1.21	0.42	0.13	0

<표 5> 노인가계의 연령별 자산구성

변수	55-64세(N=3147)			65-74세(N=1394)			75세 이상(N=283)		
	연평균	sd	구성비	연평균	sd	구성비	연평균	sd	구성비
안전금융자산	2321.1	5261.7	15.2	1756.2	3802.1	13.6	2114.9	5128.2	13.9
위험금융자산	595.8	2469.9	4.1	299.9	1463.1	2.3	703.1	8969.3	4.6
자가평가액	7761.6	9370.9	51.1	7381.0	9689.5	57.1	6995.3	9772.8	45.8
자가 이외의 실물자산	4515.8	14270.4	29.8	3495.8	12007.8	27.0	5448.7	19197.8	35.7

노인가계의 채권보유액은 주식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의 경우 전연령 가계의 평균인 3%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5-64세 노인가계와 65-74세 노인가계는 26%로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하지만, 75세 이상 노인가계는 10%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계 및 사채는 39%인 전연령 가계의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근소한 차이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토지는 55-64세 노인가계는 전연령 가계의 평균인 5%보다 높은 7%를 보이고 있는 반면 65-74세 노인가계와 75세 이상 노인가계는 각각 2%와 1%로 나타났다.

자가 이외 주택의 경우도 55-64세 노인가계는 전연령 가계의 평균인 5%보다 높은 7%인 반면 65-74세 노인가계는 4%, 75세 이상 노인가계는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가계의 포트폴리오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연령 가계와 55-64세 노인가계의 평균은 1%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65-74세 노인가계와 75세 이상 노인가계도 0%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양금의 경우는 전체 가계 모두 0%대로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각 항목별 평균액을 비교한 분산분석 결과, 계 및 사채와 자가주택 항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항목에서 F값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 2. 노인가계 가구주 연령별 포트폴리오 구성

<표 5>에서는 노인가계의 가구주 연령별 자산구성을 살펴봐왔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가계의 연령별 자산구성을 살펴보면 55-64세 노인가계의 경우 자가평가액이 연평균 7,761만원으로 가장 높고 자가 이외의 실물

자산 보유액이 연평균 4,515만원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안전금융자산 보유액이 연평균 2,321만원, 위험금융자산 보유액이 연평균 595만원 순이다.

65-74세 노인가계 역시 자가평가액이 연평균 7,381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자가 이외의 실물자산 보유액이 연평균 3,495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고, 안전금융자산 보유액이 연평균 1,756만원, 위험금융자산 보유액이 연평균 299만원 순이다. 자산구성 순서는 55-64세 노인가계와 동일하지만 각각의 금액에 있어서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75세 이상 노인가계의 자산구성을 살펴보면 자가평가액이 6,995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가 이외의 실물자산 보유액이 5,448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다. 안전금융자산 보유액은 연평균 2,114만원이었으며 위험금융자산 보유액은 703만원으로 나타났다.

75세 이상 노인가계의 자산구성을 65-74세 노인가계와 비교해보면, 자가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 도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위험금융자산과 자가 이외의 실물자산 보유액은 55-64세 노인가계 보다도 높은 금액으로 나타났다. 연령증가와 함께 위험자산 평균액이 증

가하는것은 노인가계의 자산구성이 매우 양극화 된 현상으로 인한 결과로 추측되어지며 따라서 위험자산 비중이 높은 노인가계의 보유액이 반영된 실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3. 노인가계의 자산유형별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표 6>에서 <표 9>는 자산유형별로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은 노인가계의 안전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중 결혼상태, 지역, 가구주의 교육수준, 총소득, 주식투자 유무는 노인가계의 안전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상태와 노인가계의 안전금융자산의 관계에서 기혼의 경우 사별한 가정보다 안전금융자산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영(2000)은 연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계와 그렇지 않은 노인가계의 소득 규모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

<표 6> 노인가계의 안전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편차	T-value
가족원수		-25.30	318.93	-1.19
결혼상태 (기준변수=기혼)	사별	-308.04	147.67	-2.09*
	이혼	89.25	352.62	0.25
지역 (기준변수=서울)	부산	394.79	220.41	1.79
	대구	563.78	244.38	2.31*
	인천	214.00	247.18	0.87
	광주	711.93	233.76	3.05**
	대전	298.70	255.61	1.17
	울산	706.63	382.50	1.85
	경기	401.68	228.00	1.76
	강원	-73.31	250.57	-0.29
	충청도	629.84	228.01	2.76**
	전라도	649.91	230.71	2.82**
경상도	142.72	221.26	0.65	
제주도	88.32	395.04	0.22	
학령기아동수		-10.10	124.54	-0.08
수입원 수		-77.96	82.05	-0.95
가구주 교육수준 (기준변수=초등학교)	중학교	-319.70	140.79	-2.27*
	고등학교	-58.58	131.93	-0.44
	대학이상	7.42	409.05	0.02
취업유무		-12.53	145.40	-0.09
총소득		0.05	0.00	14.80***
주식 투자 유무		1714.02	212.03	8.08***
순자산		235.09	134.09	1.75
가구주 연령 (기준변수 55-65세 미만)	65-75세 미만	-133.16	128.91	-1.03
	75세 이상	39.65	240.88	0.16
R square		0.44	adjusted R square	0.43

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 측면에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계가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임을 밝혔는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기준변수인 서울에 비해 대구, 광주, 충청도, 전라도의 경우 안전금융자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보수적인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주 교육수준의 경우 가구주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비해 중학교를 졸업한 가구주의 가계가 안전금융자산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구주의 학력에 있어 중학교 졸업자 보다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좀 더 위험회피적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이 50.53%를 차지하는 노인가계의 낮은 학력과 노인가계 전체의 특성과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가계는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안전금융자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Weagley와 Gannon(1991)에 의하면 가계는 안전자산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위험자산 축적과정으로 진전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부가 일정수준 이상 증가해야만 가계 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소득은 예측한대로 안전금융자산에 정적인 관계를 보이며 이것은 소득이 많을수록 안전금융자산의 보유비율도 높음을 나타낸다.

안전금융자산의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0.44로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44%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4개의 자산별로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각 연령별로 자가평가액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물자산, 안전금융자산 그리고 위험금융자산 순으로 구성비를 보이고 있었다.

<표 7>은 노인가계의 위험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중 결혼상태, 지역, 학령기아동수, 총소득, 주식투자유무, 순자산은 노인가계의 위험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가계의 경우 위험금융자산을 기혼가계에 비해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이혼가계가 기혼가계 보다 자산운용에 있어 좀 더 위험추구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변수를 보면 기준집단인 서울지역의 노인가계 보다 대전지역의 노인가계가 위험금융자산을 더 많이 보유

〈표 7〉 노인가계의 위험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편차	T-value
가족원수		-58.86	50.07	-1.18
결혼상태 (기준변수=기혼)	사별	-31.87	112.97	-0.28
	이혼	563.03	269.76	2.09*
지역 (기준변수=서울)	부산	18.39	168.61	0.11
	대구	336.74	186.95	1.80
	인천	318.15	189.10	1.68
	광주	133.42	178.83	0.75
	대전	535.13	195.54	2.74**
	울산	-74.75	292.61	-0.26
	경기	5.17	174.42	0.03
	강원	105.77	191.69	0.55
	충청도	263.62	174.43	1.51
	전라도	31.34	176.50	0.18
경상도	164.00	169.27	0.97	
제주도	75.36	302.21	0.25	
학령기아동수		243.78	95.27	2.56*
수입원수		56.80	62.77	0.90
가구주 교육수준 (기준변수=초등학교)	중학교	-85.03	107.70	-0.79
	고등학교	98.55	100.92	0.98
	대학이상	33.27	312.93	0.11
취업유무		77.63	111.23	0.70
총소득		0.03	0.00	12.45***
주식 투자 유무		1257.16	162.21	7.75***
순자산		369.72	102.58	3.60***
가구주 연령 (기준변수 55-65세 미만)	65-75세 미만	-137.37	98.62	-1.39
	75세 이상	206.66	184.27	1.12
R square		0.16	adjusted R square	0.16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령기아동수도 위험금융 자산에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총소득의 경우 위험금융자산과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며 이는 안전자산이 충분히 축적되어야만 위험자산으로 진행된다는 Weagley와 Gannon(1991)의 결과와 동일하다.

주식투자유무를 보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위험금융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식시장 참여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위험금융자산이 더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순자산의 경우 위험금융자산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위험금융자산의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0.16로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16%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8>은 노인가계의 자가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중 지역, 총소득, 순자산, 가구주 연령이 노인가계의 자가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변수를 보면 기준변수인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자가평가액이 서울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총소득은 자가평가액에 정적인 관계로 총소득이 많을수록 자가평가액이 높음을 나타낸다.

순자산이 많을수록 자가평가액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자가평가액 많을수록 순자산이 적은 것으로 순자산의 금액이 자가평가액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가구주 연령과의 관계에서는 기준집단인 55-64세 노인 가계보다 65-74세 노인가계의 자가평가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가평가액의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0.60로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60%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9>는 노인가계의 자가 이외 실물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중 결혼상태, 지역, 총소득, 주식투자유무, 순자산이 노인가계의 자가 이외 실물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노인가계의 자가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편차	T-value
가족원수		133.19	106.61	1.25
결혼상태 (기준변수=기혼)	사별	-138.94	240.52	-0.58
	이혼	-107.54	574.34	-0.19
지역 (기준변수=서울)	부산	-3997.32	359.00	-11.13***
	대구	-4906.31	398.03	-12.33***
	인천	-5052.32	402.60	-12.55***
	광주	-5431.80	380.74	-14.27***
	대전	-6027.95	416.32	-14.48***
	울산	-3616.84	622.99	-5.81***
	경기	-4250.58	371.36	-11.45***
	강원	-5671.58	408.12	-13.90***
	충청도	-7268.30	371.38	-19.57***
	전라도	-6120.59	375.78	-16.29***
경상도	-5998.77	360.39	-16.65***	
제주도	-4277.03	643.42	-6.65***	
학령기아동수		25.25	202.84	0.12
수입원 수		-97.49	133.65	-0.73
가구주 교육수준 (기준변수=초등학교)	중학교	-69.19	229.31	-0.30
	고등학교	166.37	214.88	0.77
	대학이상	-109.79	666.25	-0.16
취업유무		-199.26	236.82	-0.84
총소득		0.26	0.00	47.24***
주식 투자 유무		-307.53	345.35	-0.89
순자산		-6998.58	218.40	-32.04***
가구주 연령 (기준변수 55-65세 미만)	65-75세 미만	640.30	209.96	3.05**
	75세 이상	-206.83	392.33	-0.53
R square		0.60	adjusted R square	0.60

결혼상태를 보면 사별가계의 경우 기혼가계에 비해 자가 이외 실물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혼일 경우 두 사람이 나눠가질 자가 이외 실물자산을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나머지 배우자에게 유산으로 상속함으로써 보유액이 증가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변수를 보면 기준변수인 서울지역의 노인가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노인가계가 자가 이외 실물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득은 자가 이외 실물자산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자가 이외 실물자산 보유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가계의 경우 자가 이외 실물자산과 같은 실물자산보다는 금융자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상했던대로 순자산이 많을수록 자가 이외 실물자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가 이외 실물자산 회귀 분석의 설명력은 0.76으로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76%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가계의 가구주 연령은 55세 이상 64세 가구가 전체의 65%로 전체 노인가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74세 이상 노인가계가 28.9%, 75세 이상의 노인가계가 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가계는 76%로 자가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계는 약 24%로 나타났다. 주식투자의 경우 노인가계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7.13%로 나타났다.

포트폴리오 구성비를 살펴보면, 은행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그 중에서도 75세 이상 노인가계의 경우 은행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3%로 안전자산 선호도가 극도에 이른것을 볼 수 있다. 개인연금의 경우 75세 노인가계는 다른 연령의 노인가계에 비해서 매우 저조해 10%에 이르고, 부동산의 경우 토지나 자가주택 이외의 경우 노인가계는 전연령 가계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중

〈표 9〉 노인가계의 자가 이외 실물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편차	T-value
가족원수		91.78	120.88	0.76
결혼상태 (기준변수=기혼)	사별	539.11	272.72	1.98*
	이혼	-708.57	651.24	-1.09
지역 (기준변수=서울)	부산	3091.46	407.06	7.59***
	대구	3627.04	451.32	8.04***
	인천	4102.48	456.50	8.99***
	광주	4172.82	431.71	9.67***
	대전	4954.97	472.06	10.50***
	울산	2551.56	706.40	3.61***
	경기	3580.72	421.08	8.50***
	강원	5396.98	462.77	11.66***
	충청도	5928.06	421.10	14.08***
	전라도	5169.98	426.09	12.13***
경상도	5404.20	408.64	13.22***	
제주도	3827.55	729.57	5.25***	
학령기아동수		-320.11	230.00	-1.39
수입원 수		234.79	151.54	1.55
가구주 교육수준 (기준변수=초등학교)	중학교	382.55	260.01	1.47
	고등학교	-77.63	243.65	-0.32
	대학이상	267.83	755.45	0.35
취업유무		112.89	268.53	0.42
총소득		0.65	0.00	105.09***
주식 투자 유무		-2657.57	391.59	-6.79***
순자산		6324.67	247.64	25.54***
가구주 연령 (기준변수 55-65세 미만)	65-75세 미만	-429.43	238.08	-1.80
	75세 이상	-88.56	444.86	-0.20
R square		0.76	adjusted R square	0.76

으로 나타났으며 계와 사채는 노인가계의 경우 현저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노인가계 중에서도 연령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안전금융자산, 위험금융자산, 자가평가액 그리고 기타 실물자산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노인가계는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안전금융자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비해 대구, 광주, 충청,전라지역이 안전금융자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득의 경우 위험자산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안전자산이 충분히 축적되어야만 위험자산으로 진행한다(Weagley와 Gannon(1991)의 결과와 동일하다).

자가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지역, 총소득, 순자산, 가구주 연령으로 나타났으며, 순자산이 많을수록 자가평가액은 적게 나타났으며 순자산의 금액이 자가평가액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기타 실물자산은 기혼가계에 비해 사별가계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자산이 많을수록 실물자산은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총소득은 기타 실물자산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보통 재무관리의 바람직한 방향은 연령의 증가와 생애 주기의 흐름에 따라 발전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의 취약성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더욱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노인가계는 금융자산 보다는 실물자산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실물자산 중에서도 자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을 동반한 수익성이 큰 자산보다는 은행상품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하며 노인가계의 위험금융자산 보유수준은 매우 적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노인가계는 현재생활에 급급하며 경제적 위험 대비나 가계의 경제적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나라 노인가계의 재정관리시 상당한 숫자의 가계들이 재정적 성장의 어려움은 물론 가족의 질병, 사고, 실업 등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부채를 갖게 되고 이러한 재정적 문제를 극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노인가계의 부동산 보유액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은 우리나라 노인가계의 재정문제가 유동성보유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가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험금융자산이 증가하는 것 역시 가계 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노인가계의 재정상태가 매우 양극화되어 있는 결과에서 추론되어 질수 있으며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의 유용성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계의 구체적인 경제적 구조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노인가계에게 가계재무계획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며 가계재무계획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의 입안자에게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정책의 기본선 설정에 도움을 주며 최저층에 있는 노인가계의 소득안 창출, 조세감면 등의 프로그램을 구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정부차원에서는 예비노인가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년기를 대비하여 경제적 준비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넷째,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교육기관에는 초·중년기에 있는 가계로 하여금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재무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재무비율, 노인가계, 재정, 포트폴리오, 자산 상태

## 참 고 문 헌

- 김근연·이기영 (1991) 노후를 대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계획 수행. 대한가정학회지, 23 13-23.
- 강석훈(1998)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 금융자산 보유행태 분석, 제4회 통계의 날 기념세미나 발표자료집, 31-62, 통계청.
- 김미 (1992).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의식조사. 광주보건전문대학 논문집, 17권, pp. 231-250.
- 김순미·양정선 (1994). 가계재무관리 유형에 따른 은퇴계획. 대한가정학회지, 32(5), 45-54.
- 김연정 (1998).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7), 57-67.
- 김성숙·박운아 (1992). 도시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과 관련요인 연구. 소비자학연구, 3(2), 45-58.
- 김애순·윤진 (1995). 은퇴 이후의 심미 사회적 영향. 한국노년학, 15(1), 141-158.
- 이행숙 (1994). 은퇴에 대한 문헌연구. 경원전문대학 논문집, 16집 1호, pp. 527-548.
- 문숙재, 김순미 (1997).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 1-15.
- 문숙재, 여운경(2001), 예비노인의 은퇴와 경제적 복지의 예측, 소비자학연구 12(1)

- 박주영 · 최현자(1999), 자산계층별 가계포트폴리오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93-206.
- 배규희 (1988).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문조, 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 성영애 (1994). 미국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31-43.
- 심영 (2000). 단독가계 노인소비자의 소득, 자산, 소비지출 분석. 소비문화연구, 3(1), 121-146.
- 이희숙, 신상미(2003),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 양세정, 성영애(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73-190문숙재, 여윤경 (2001). 소비자트렌드 21세기. 시그마프레스.
- 여윤경(1999), 가계 은퇴자산의 충분성, 소비자학연구 10(4)
- 이은실 · 최현자(1998),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소비자포트폴리오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11-121.
- 이필상(1993), 투자론, 서울 : 법문사.
- 윤진 (1989). 성인 노인 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정경배, 김순옥, 우득재, 박성민, 정상호 (1998). 국민연금제정추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 홍성희, 이경희, 곽인숙, 심순미, 김혜연, 김성희 (1998). 노년기 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중노년층의 노후생활계획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22.
- DeVaney, S. A., Confidence in Financially Secure Retirement : Differences between Retirees and Non-retirees, *Consumer Interests Annual*, 41, 42-49.
- Prather, C. G.(1990), The Ratio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e Statements: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CP*, 1, 53-70.
- Radner, D. B.(1987), Money Income of the Aged and nonaged Family Units 1967-1984, *Social Security Bulletin*, 50(8), 9-28.
- Ramaswami, S. N., Srivastava, R. K. & Macintosh, T. H.(1992), An Exploratory Study of Portfolio Objectives and Asset Holding,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19, 285-306.
- Scheltz, J. H.(1992), The Economics of Aging(5th ed.), Auburn House.
- Weagly, R. O. & Gannon, C. F.(1991) Investor Portfolio Allocation, *FCP*, 2, 131-154.
- Xiao, J. J.(1995) Patterns of Household Financial Asset Ownership, *FCP*, 6, 99-106.
- Yuh, Y. & DeVaney, S. A.(1996),Determinants of Couple's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Funds, *FCP*, 7, 31-39.

(2006. 05. 08 접수; 2006. 10. 13 채택)